

SKC, 중국에 LCD필름 공장 건설

최동일 사장, SKC차이나 설립 추진 ... 첨단 고부가가치 사업군 확대

SKC가 중국에 IT용 소재필름 사업을 확대해 가공필름 부문에서 중국 1위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중장기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SKC(대표 최동일)는 9월23일 중국 쑤저우(蘇州) 인근 우지양(吳江)시에 위치한 IT용 가공필름 공장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우지양공장에서 거행된 준공식 행사에는 SKC 최동일 사장과 박장석 부사장 등 임직원 30여명과 중국 우지양시 朱建勝 공산당 서기 등 정부 관계자 및 관련업계 인사 등 약 15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SKC 최동일 사장은 준공식 기념사에서 "SKC의 중국 우지양공장은 차세대 IT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SKC가 처음으로 설립한 단독법인으로서 세계적인 IT용 필름 생산공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지양공장은 2002년 8월 착공에 들어가 약 1년 동안 1000만달러를 투자해 건설한 IT용 가공필름 공장이다. 1만평의 부지에 2개의 코팅 라인을 갖추었으며, 한해 1000만단위(SQM)의 TFT-LCD(초박막액정표시장치)용 확산필름과 하드코팅필름 등의 전기·전자소재 필름을 생산해 2004년 300억원, 2005년에는 500억의 매출액을 각각 예상하고 있다.

2002년 SKC는 2005년까지 TFT-LCD용 등 IT용 필름 사업의 생산거점을 다각화하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세계 1위로 끌어올린다는 장기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중국 우지양에 1000만SQM 규모의 LCD용 필름 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또 국내 천안공장에 1개 라인을 추가로 증설하고 중국 우지양공장 1개 라인, 타이완 1개 라인 추가증설을 검토하고 있어 2005년에는 TFT-LCD 필름에서만 국내외를 합쳐 한해 1400억원의 매출액을 올릴 계획이다.

한편, 반도체 제조용 소재필름, 환경보호용 유기필름 등으로 생산범위를 확대해 중국시장에서 고부가 IT용 가공필름 부문 1위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중장기 전략도 추진 중이다.

SKC 중국공장 준공식



† 김수필 사장, 周健風 소주 부시장, 최동일 SKC 사장, 馬明龍 吳江市長

PET필름은 2003년 안에 중국 판매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한국과 미국의 생산거점 외에 새로운 중국 생산 거점도 검토중에 있다. IT용 소재필름 사업은 TFT-LCD용 확산필름과 FFC, 하드코팅필름, 포토마스킹용 필름과 같은 IT용 가공필름 외에 반도체 제조용 소재필름, 환경보호용 유기 필름 등으로 생산을 확대해 앞으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중국에서 가공필름 1위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장기전략이다. 차세대 주력 사업인 리튬폴리머 전지는 쑤저우 지역에 조립라인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SKC는 또 2003년까지 중국 투자와 사업을 총괄하는 SKC차이나(가칭)를 설립하는 작업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9/24>